

그린투어리즘 일본 연수기

우장명 박사
(충북개발연구원)

일 본에서 그린투어리즘을 농업정책의 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일본의 농가는 약 330만호이며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약 0.2%이다. 이번에 방문한 큐슈지역은 일촌일품운동으로 유명한 오이타현이 있어서 일찍부터 그린투어리즘을 이끄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일본에서 그린투어리즘으로 농촌과 농업이 활성화된 성공 사례와 현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방문한 지역은 稜町(아야초), 小國町(오구니마치), 産山村(우부야마무라), 湯布院町(유후인초), 安心院町(아지무초), 西國東町(니시쿠니사키초), 別府市(베틀시)이다.

일본에서 처음 방문한 곳은 마호로바노사토지역의 가마메시(무쇠술밥) 식당과 도자기 공장이다. 도자기공장에서 도자기 제작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으며 도자기 교실에서 만드는 과정을 배울 수도 있다. 그리고 판매장도 운영하는데, 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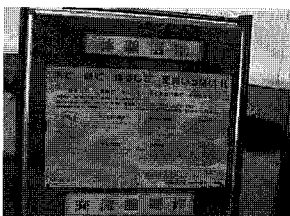
생산된 농산물을 같이 팔고 있었다.

아야초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장을 방문하였는데, 상표에는 판매장에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민들에 대한 일련번호가 있어서 생산자를 확인하기가 매우 쉽게 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얼굴이 보이는 생산자, 얼굴이 보이는 소비자"를 추구하면서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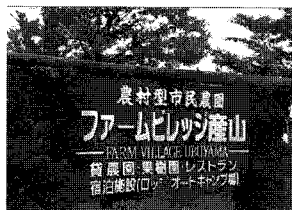
오구니마치에서는 그린투어리즘대학을 방문하였는데 일종의 그린투어리즘 운영자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투어리즘대학의 설립 목적은 지역에 맞는 민박의 규모, 운영을 통하여 성공적인 그린투어리즘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다고 하였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족한 성과를 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부야마무라에서는 관광목장을 시찰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민박시설과 농촌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시작 초기에는 호응이 좋았으나 소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였다. 관광목장에서는 요구르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맛이 좋았다.

아소에서는 「百姓の家(학쇼노이에)」란 민박집을 방문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농업을 이해를 못하는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그린투어리즘 체험 마을



사람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농업도 가르치고 있는데 일본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들도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교육비, 숙박비는 무료였다. 그린투어리즘의 성공 여부는 도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서비스 차원이 저자세가 되면 안되고



▲ 일본 어린이들의 농촌체험 관련 사진들



▲ 일본의 농촌 풍경

동등한 위치에서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운영자는 강조하였다. 유후인에서는 압화를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체험 시설과 민박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민박을 하면서 압화(押花) 기술을 배우거나 온실에서 재배되는 난과 화초 등을 보고 사가기도 하였다.

아지무초는 읍의 행정조직에서 그린투어리즘계를 설치하고 그린투어리즘사업을 관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주요 업무를 보면 농촌민박 홈페이지 제작, 이벤트 계획 및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추진, 홍보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와 건의 등이었다.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하여 민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박집에서는 방문 카드를 만들어서 10번 방문하면 친척으로 우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 방식은 "아지무방식"이라고 하여 일본 전국 민박집에서 실시하고 있다.

니시쿠니사키에서 농촌형 레스토랑과 민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다케나카사장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시설만 먼저 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버블경제(Bubble Economy)시기에 시작되었으며, 그 뒤 불황의 여파로 도시민이 이용하는 회수가 점점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다케나카사장은 다른 지역에서 교수를 하다

가 퇴임하고 현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지역주민이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오이타 농업문화공원에는 약초공원이 있었는데, 각종 약초에 대한 효능을 팻말로 적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체험 이후에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전시하고 있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가공식품 및 생활 용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린투어리즘이 성공하려면 다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시설의 규모와 찾아오는 도시민의 수 등에서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촌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농촌의 특징을 가꾸어 나가는 농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린투어리즘의 주체인 농민은 물론 도시민들에게도 농촌체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행정기관, 농업인 모두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하고, 특히 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린투어리즘은 잃어버린 농심의 회복이며,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우리 고유의 인정스런 문화와 공동체를 우선했던 협동정신의 회복이다. ㉞